

선진 3개국만 살펴봅시다.

## 1. 영국

지난 500년 동안 영국을 이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 최강의 국가, 최선진국, 경제·군사대국, 최고의 대학, 최고의 교육, 모범적인 의회 민주주의, 사회 안정을 이룬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16개국을 영국 여왕을 국왕으로 모시고 있으며 금융, 방송, 언론(로이터, BBC, 네이처), 문학(셰익스피어), 정치(윌리엄 글래드스톤), 과학(뉴턴) 등 각 분야에 인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하고부터입니다.

① 그녀는 1558년 11월 17일에 즉위하였습니다.

② <뉴욕 타임즈>는 지난 1천 년 동안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엘리자베스 1세를 선정했습니다.

③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앤 불린은 아들을 낳지 못하여 아버지 헨리 8세에 의하여 참수되었고, 이복언니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런던탑에 가두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삶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④ 국가는 유럽에서 최하위로 전락하여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국고는 바닥나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신구교의 극한 대립으로 유럽에서 더 이상 단 하나의 소망도 없는 때에 어린 여인이 한순간에 왕이 되었습니다.

⑤ 그 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스페인(무적함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으며, 세계를 정복하여 해양대국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대의 왕국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고 자신의 비참함을 극복한 사람은 그 어떤 위기에서도 모퉁잇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⑥ 그녀는 왕이 되어 땅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오직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침대에서 내려와 왕이 될 때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내려오시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입니다.

45년 통치가, 비천한 인생이, 비천한 가정, 버림받은 국가가 소망 없는 절망과 위기에서 살아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길은 어디에서 옵니까?

## 2. 미국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 11개 주, 북쪽 24개 주가 계속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1년에 C-SPAN TV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역사를 전공한 최고의 학자 58명을 동원하여 1년 동안 각 항목별로 위대한 대통령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중 설득력, 경제관리 능력, 도덕적 권위, 대의회 관계, 비전 제시, 평등과 정의 추구 등 6가지 항목에서 1위는 링컨이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링컨을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링컨에게 “성공하고 존경 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게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보다 더 비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링컨의 전기 작가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았습니다.

① 그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밤에도 자지 않고 울며 기도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기도일을 선포하고 기도한 대통령입니다.

② 성경을 읽고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③ 톨스토이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출처 :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오늘의 미국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가 아닙니다. 지하자원이나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는, 잘 훈련된 사람이 온 인류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머릿돌이 항상 함께합니다.